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6-30)

지난주 말씀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재앙을 몰아낼까에 대한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다르게 아니라 다윗이 단을 쌓기 원하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러면 이 보혈은 재앙을 몰아내는 유일한 약속이라는 말이다. 우리 모두가 참고로 해야 하고 특히 어려움 있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참고하기 바란다. 사단을 죽이는 답은 언약의 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권세는 예외가 없다. 모든 문제 저주, 운명을 축복으로 역전시킨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항상 완전 언약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은 없다. 안되는 것이 왜 없겠냐? 안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안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전이 되어 축복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것이 다음 응답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다시 언약을 다시 잡는 실패가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실패가 없고 중요한 응답으로 바뀌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결론적인 답에 도달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많은 예가 있다. 이 언약에 올인해야 한다. 그러면 인생의 작품이 된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마음을 정하고 도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말이다. 마음을 잡고 언약을 잡으면 사단은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우리 하기 나름인 것이다. 천국은 이미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데 참고할 것은 반드시 언약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침노할 힘을 얻는 것이다. 안 그러면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된다. 다시 한번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1.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귀한 말씀이다.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26절에는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우리가 사실 하는 기도는 다른 것을 많이 기도한다는 뜻일 것이다. 기도하는 기술 자체를 모르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주신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놀라운 은혜이다.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셨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내용 하나를 써 놓았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주시다. 그러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한다. 그것이 바른 기도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한 것으로 만드신다. 29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신다. 특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많이 있다. 처음부터 알고 우리를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그 뜻의 최종목표가 뭐냐면 30절이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다. 죄 뿐인데, 의롭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구원해주셨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리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놀라운 사랑이고 감사한 일이다. 이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전부 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중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 주신다. 운명과 저주를 바꾸는 능력이 단에 있다

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이 단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면 그 뜻대로 하면 된다. 내 인생을 전부 이렇게 바꾸는 능력,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다.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뻔 하고 노예로 팔려갔다.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비밀을 써 놓았다. 결국 그의 인생은 당대 최고의 인생 되었다. 요셉 아니었으면 애굽 사람들도 다 죽었다. 7년간 기근이 들어서 비가 안 오면 다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찌 된 일인지, 이것을 요셉에게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면 왕이 요셉에게 무릎 꿇을 만 한 것이다. 그런데 노예가 안되었으면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애굽으로 가장 안전하고 빨리 가는 길이 노예였다.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장관을 만났겠냐? 그 장관이 요셉을 왕에게 소개한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다. 내가 아는 어떤 분도 그렇다. 잘 사는 분이고 많이 배우고 돈도 있고 관찮은 사람이었다. 아쉬운게 없으니 누구에게 손 벌리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 암에 걸렸다. 그 즉시로 달라지는 것이다. 사람이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버렸다.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포기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낙심해서 집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날 길거리 걸어가다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다. 죽음앞에서는 사람이 달라지는 법이다. 그래서 노방전도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다. 죽는데, 교회나 가지 뭐하겠는가? 그래서 되나 안되나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영접하는 것도 없이, 그냥 교회 가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땀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참석했는데, 병이 그냥 나아버렸다. 전에 한번 이야기 한데로, 어떤 불신자가 암 걸려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하염없이 걸어가는데 옆에 교회가 보였는데, 평소에는 신경도 안쓰다가 그날 유난히 한번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들어서 기도했다.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찬송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간 것이다. 찬송도 186장밖에 모르니까 가서 무조건 그 찬송만 부르는 것이었다. 이 사람도 나왔다. 나왔으니까 간증에 나온 것이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죽은 사람도 많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해도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뭐하려고 죽는 것을 잡겠는가? 나는 것을 잡아야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을 잡아야지, 안되는 것을 잡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소리 하는 것은 듣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나아버리니까 놀라서 전도사가 되어 버렸다. 정말 기적적이고 역전이다. 하나님 알고 구원도 받고. 인생도 새로워졌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해 보면 불치병 안 걸렸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잘 살다가 어느 날 지옥 갔을 것이 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아픈 것이 잘 된 것이다. 아플때는 왜 나만 아픈가 싶다. 인간은 늘 교만하여서 나보다 못한 인간들은 왜 건강한가? 나는 왜 그런가 싶은 것이다. 나중에 낮고 난 후에 보니까,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 때 안 아팠으면 어쩔뻔 했는가 싶은 것이다. 이 놀라운 선을 누리는 비밀이 복음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 무엇이나면, 내가 너의 인생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선을 만들어줄테니, 너는 단을 쌓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재앙 떠나가는 것이다. 응답 안된다, 인생 안되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단을 쌓아라.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계속 바뀌면 그 사람은 증인된다. 모든 성도들이 다 누려야 하겠지만 특별히 어려움 있는 분들은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내가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으로 만드신다.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다는 것을 결론으로 잡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즉시 사단은 무너질 것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한 단어만 잡아도 사단 무너진다. 이렇게 결론 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바란다. 단을 진짜 쌓고 진짜 쌓으면 깊어지게 되어 있다. 이걸 지속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망대와 같은 단이 될 것이다. 내 가정과 자녀와 후손과 산업과 모든 현장에 망대같은 단이 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과 남미의 땅 끝까지 영향을 주는 시대적인 망대가 되는 것이다.

지난 주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르게 아니라 너는 단을 쌓으라고 하셨다. 그러면 재앙이 떠나갈 것이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 지속하면 우리 인생에서 재앙이 떠나간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 안해도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된다. 이런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

2. 뜻이 통한 자

우리는 하나님과 뜻이 통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에 무리가 없어지고 옆길로 가서 허비하는 일이 없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뜻이 통한 사람은 반드시 정복하는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다. 엘리사를 생각해 보라. 도단성에 적군 쳐들어왔다. 기도 한마디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 무기가 있어도 소용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갑절의 영감, 영력이다. 이 언약 가진 사람은 뜻이 하나님과 통하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 다니엘은 이유를 알고 뜻을 정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가장 큰 위기가 왔는데도 전에 하던 그대로 했다. 한나도 어느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는데,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시대적인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 이 후에 삼남이녀도 더 주셨다. 요게벳의 시대는 아주 위기의 시대였다. 애굽왕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때에 모세를 낳았다. 진짜 난감한 시대 아닌가? 아이가 울면 들켜서 잡혀 가는 것이다. 요게벳은 진짜 보통 여인이 아니었다. 이 때 요게벳은 뜻을 정했다. 보통 사람들은 애굽을 피해 도망가지만 그는 애굽의 정국을 찿았다. 왕궁 안에다 아이를 낳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는 답을 잡았다. 공주가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성경에 없으니,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공주가 언제 목욕하러 오는 지 보고, 거기다 모세를 갖다 놓은 것이다. 누나 미리암을 보고 있게 하고 연락하게 하였다. 이 애굽 공주가 울고 있는 모세를 보고 히브리 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아들을 삼은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유모 찾았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말했다. 이제 요게벳이 자기가 낳은 아이의 유모가 되었다. 다시 한번 뜻을 굳게 정했다. 그리고 언약 잡고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창세기 이야기 했다. 절먹이었다. 낳지 마자 말을 알아듣는가? 시간은 정해져있다. 말도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어떻게 했겠나? 말보다 기도를 더 했을 것이다. 절먹이게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 가지고 했다. 진짜 사명자였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 외에는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줄것이 없다는데에 답이 난 것이다. 금토일 시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것은 이 복음 하나 뿐이야, 결단단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대대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 여성이었다. 시간 길지 않다는 것 알고 있었다. 영원히 데리고 있을수 없고 보내야 했다. 기도 진짜 했을 것이다. 절 떼기 전까지 들었던 이 창세기 이야기를 모세는 40살이 넘을때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을 모세가 기록해서 창세기가 탄생한 것이다. 사실은 모세가 아니고 요게벳이다. 생각해 보면 남자 여자 차이가 없지만 대부분 역사적인 흐름은 남자들에게 있었다. 그런데 요게벳은 그런 여성이 아니었다. 남자고 뭐고 상관 없이 이 복음 아니면 답 없다는 답났다. 이 복음 아니면 어떻게 이 아이를 지키겠냐는 것이다. 요게벳의 기도와 그 마음의 뜻과 결심이 대단하다. 이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중한 쓰임 받은 사람이 성경과 교회사에 많이 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있다. 우리에게 임한 응답을 성경에 써 놓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고 남미 끝까지 만들려고 한다.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그리고 인생이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 안 들어오면 의미 없다. 우리 중에는 이런 인생을 살 중직자, 렘넌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무나 간단하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내 인생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세상에 전달해서 사단의 나라를 깨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세우는 것이다. 이 망대와 같은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라 망대와 같아서 땅 끝에서도 사람이 올 그런 언약을 잡는 것이다. 이 망대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은 반드시 밝아진다. 빛의 경계라는 말은 경계가 밝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복음이 전해 지는데도 밝아지지 않는 곳은 없다. 절대 망대이고 아무도 이 빛을 막지 못한다. 하나님의 권세이다. 믿어야 한다. 먼저는 내 안에 이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어두운 구석, 내 마음 내 생각에 어두움과 저주 다 박살내달라고 해야 한다. 반드시 밝아진다. 그렇게 안되는 일은 없다. 무조건 밝아지고 밝아질 일만 남았다. 그러니 우리가 불신앙을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응답받고 증인 될 일만 남았다. 우리에게 죽을 일이 남았는가? 죽으면 다시 살아가는 일이 남았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길, 너무나 간단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기도하면 된다. 전에 어떤 분이 왜 나는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고 했다. 그러다 기도했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우리가 만일 뜻이 하나님과 같으면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어진다. 기도가 애가 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과 갈등이 있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기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 뜻이 같으면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과 나와 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 가까이 느낀다. 하나님의 소원과 내 마음이 통하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러워진다. 뜻이 통한 다니엘은 바벨론을 건진 것이다. 사실은. 바벨론을 살리는 인생을 살았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왜 그렇게 만드셨나? 뜻이 통했다. 하고자 하는 이유나 뜻이 같았다. 결국 나에게 이유가 있다. 진짜 바뀌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일, 괴롭고 힘든 일, 죄 지은 일 다 합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나는 부족하고 언약해서 매일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으로 만들어주신다. 우리는 중요시 하는 사람은 웃기는 이야기라 할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웃기는 소리로 사는데 아니라 언약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사도바울도 곤고하고 소망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협력하여 시대의 선으로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반드시 신 것이다. 스스로 고백했다. 나는 안된다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건 내 부족한 것에 속은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 복음 들을때에 뺨대가 낫다고 하였다. 왜냐면 복음 아닌 것에 속아서 양심적인 이야기만 했다. 그런데 양심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언약 안에서 양심이어야지 언약 밖에서 양심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아주 나이스하게 죽인다. 주위에서 칭찬한다. 아름답게 죽는다고. 나는 살고 싶다. 그럴려면 언약을 잡아야 한다. 죄 필요 없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했다. 언약 되기 바란다.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내 인생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신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 뿐, 단을 깊이 쌓고 망대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